광주은행 "내년 순익 3000억 달성"

2011년 경영전략 '변화·질적성장'
공격적 영업·사회공헌 활동 계속

민영화 논란과 지역 건설사 붕괴 등 악재 속에서도 내실있는 경영을 펼쳐온 광주은행이 내년에는 서울과 전남지역에서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펼쳐 'KJB브랜드 가치 제고'에 힘을 쏟기로 했다.

23일 송기진 광주은행장〈사진〉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2011년에는 변화와 질적성장을 키워드로 광주은행 브랜드 가치 제고에 매진하겠다"면서 "최대 수익실현과 2050년 세계 100대 은행 진입을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광주은행은 내년 1월 서울 마포와 순천 법조타운, 진도에 신규 점포를 개설하는 것을 시작으로 서울과 전남지역에서의 영업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은행 분석자료에 따르면 광주은행의 수신 시장점유율(9월말 기준)은 광주가 41.93%, 전남이 17.44%였으며, 여신(11월 말 기준)은 광주가 31.26%, 전남은 16.17%를 기록했다. 특히 전남지역의 경우 지난해 말 보다 여신은 1.75%포인트, 수신은 1.53%포인트 증가해 광주은행의 여·수신 시장 점유율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송 행장은 "서울과 전남지역에서의 공격적인 영업활동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당기순이익 3000억원 시대를 열겠다"며 "올해 당기순이익이 1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광주은행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 만큼 서울과 전남지역에서 당기순이익을 1000억원씩 달성한다면 '3000억원 고지'에 올라서는 것도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기순이익의 4~5%를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실익을 떠나 신안, 구례, 곡성 등 전남지역의 금융소외지역에도 점포를 개설하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지방은행으로서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우리금융 민영화 중단을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광주은행의 영업에 매진하면서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당기순이익=일정 기간의 순이익, 즉 기업이 벌어들이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 기업이 쓰는 모든 비용과 손실을 뺀 차액.

'햇뜻 참다래' 런칭쇼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용복)는 전남지역연합사업으로 추진 중인 '햇뜻 참다래'의 본격 출하를 앞두고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서울 양재 유통센터 등 수도권 농협유통센터 5개점에서 '소비지 런칭쇼'를 개최하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광주·전남 제조업 '호조' 고용은 '부진'

자동차·가전·철강제품 중심으로 증가
비농림어업 취업자수 2만3000명 감소

최근 광주·전남 지역 경제가 제조업 생산 증가와 수출 증가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였지만 고용부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최근의 광주·전남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10월 중 제조업 생산은 수출 호조, 조업일수 정상화 등에 힘입어 전달 5.1% 감소에서 4.3% 증가로 전환했다.

11월 제조업 업황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전달과 같은 94로 변화가 없었고, 수출은 광주의 자동차(33.2%), 가전제품(43.9%), 전남은 철강제품(29.2%)과 석유화학제품(30.9%)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호조를 이어갔다.

11월 중 제조업 자금사정BSI는 97로 전달보다 6포인트 상승하고 어음부도율(0.22%)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기업자금사정도 대체로 원활한 모습을 보였다.

10월 중 백화점 등 '대형 소매점' 판매는 추석명절 이동 등으로 증가폭(9.0%→0.2%)은 크게 축소됐지만 1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11로 전달(108)보다 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월 중 건설활동은 건축착공면적 감소폭이 축소(-19.5%→-6.0%)되고 건축허가면적(-6.6%→34.0%)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신규분양은 여전히 부진했지만 미분양 아파트는 할인판매와 임대전환 등에 힘입어 전달보다 391가구가 감소한 4747가구를 기록했다.

11월 중 고용은 비농림어업 취업자수가 전달(-2만2600명)에 이어 2만3800명이 줄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고 실업률도 전달보다 0.1%포인트 오른 2.1%를 기록해 개선되지 않았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광주국도관리사무소 등 3곳
나라장터 이용 우수 감사패

광주지방조달청(청장 유근성)은 23일 '나라장터 이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광주국도관리사무소 등 3개 기관을 방문, 감사패를 전달하고 유공 공직자에게 표창장 및 부상을 수여했다.

나라장터 이용 우수기관에는 광주국도관리사무소와 전남도로안전관리사업소, 구례군 등이 선정됐으며, 이들 기관은 나라장터 이용수수료·종합쇼핑몰 구매실적, 전자계약금액 등 평가항목에서 우수평가를 받았다.

또 우수 공직자에는 광주국도관리사무소 나대철 씨 등 3명이 선정됐다.

유근성 광주조달청장은 "정부조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

"물가 3% 중반 오름세 상당기간 지속"

韓銀 내년초 기준금리 인상할듯

한국은행은 앞으로 소비자물가가 3%대 중반의 오름세를 상당기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23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에 대한 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한은은 올해 물가 상승률이 2.9%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물가 안정 목표 중심치(3%)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와 중국의 물가 급등이 국내 물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 요인으로는 기대 인플레이션 확산과 전세가격 오름세를 꼽았다.

우리나라가 주로 도입하는 두바이유 가격은 22일 배럴당 90.63달러로 2년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데다 설탕 등 식품가격이 들썩이고 공공요금 인상도 예상되는 등 물가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한은은 내년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물가 상승률 예상치를 종전 3.4%에서 3.5%로 높여 잡았다.

이에 따라 한은이 현재 연 2.50%인 기준금리를 이르면 내년 초에 인상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신탁회사
수탁고↑ 수익성↓

올들어 3분기(1~9월)까지 부동산 신탁회사들의 누적 수탁고는 늘었으나 수익성은 오히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11개 전업 부동산신탁사의 수탁고는 지난 9월 말 현재 137조7000억원으로 작년 동기의 112조1000억원에 비해 22.8% 증가했다.

그러나 올들어 1~3분기까지 누적 영업수익은 2302억원으로 작년 동기 2657억원에 비해 13.4% 감소했고, 이 기간 당기손익은 703억원 흑자에서 182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연합뉴스

북구 매곡동에 이마트…"우회입점 현실화" 반발

대형마트 입점 논란을 빚었던 북구 매곡동에 신세계 이마트가 들어설 전망이다.

13일 부동산개발전문회사 STS도시개발(주)에 따르면 지난 10일 광주시 북구 매곡동 1-5번지 등에 대한 매각 공고 절차를 통해 단독 입찰한 신세계(이마트)와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부지(2만4661㎡)는 STS도시개발이 매입하기 전까지 1년 동안 중소상인 반발, 건축허가 신청 반려, 행정소송 등 논란 끝에 지난달 30일 건축허가가 결정된 곳이다.

지난달 30일 이곳을 매입한 STS도시개발은 지상 4층·지하 4층 규모(주차대수 474대)의 대형마트를 개설할 계획이다.

신세계가 해당 부지의 경우 최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 유통매장 입점 제한지역이 아닌데다, 인근에 대형 유통매장이 없는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해 최종 입점을 결정했다고 STS도시개발은 설명했다.

하지만 북구대형마트입점저지대책위 등 지역 중소상인들은 "이면 계약 등을 통해 샹젤리제코리아가 허가권을 얻고 건축·운영과정에서 주체가 바뀌는 등 대기업 우회입점 의혹이 현실화됐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해당 부지 인근 고려중·고 학교법인이 '학습권 침해'를 주장하며 건축을 허가하도록 한 행정소송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으며 북구청도 광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를 토대로 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어 개점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종신+질병+요양 묶은 '통합보험' 올 히트상품

3294억 신규가입…작년보다 24% 급증

통합보험이 올해 보험업계의 히트 상품으로 떠올랐다.

23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주요 생보사의 통합보험 신규 가입액은 329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653억원보다 24% 급증했다.

통상 보장성 보험의 판매 신장률이 10%를 넘기 힘들다는 점에 비춰볼 때, 20%를 넘는 증가율은 대단한 인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올해 1~11월 통합보험의 신규 가입액이 231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가까이 늘었다.

알리안츠생명(55%), 동양생명(49%), 미래에셋생명(37%) 등도 높은 판매 신장률을 기록했으며, 대한, 교보, 흥국생명 등의 통합보험 판매도 호조를 보였다.

통합보험의 인기는 합리적인 보험 설계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결과로 해석된다.

평균 생명보험 가입건수가 4.6건에 달한다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 우리나라 보험 가입자들은 종신, 질병, 요양 등 여러 보험 상품에 따로 가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종신보험과 의료실손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을 하나로 합친 통합보험에 들게 되면 이 모두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또 통합보험은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자녀까지 들 수 있어 온 가족이 함께 보험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연합뉴스